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 리포트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09호
[2021-8]
2021. 5. 10.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경제

경제적 영향의 중간평가

| 요 약 |

- 이번 위기는 국내 연간 실질GDP 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을 각각 3%포인트, 7%포인트 이상 낮추고 고용을 약 46만 명 감소시키는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
  - 과거의 주요 위기와 비교할 때 소비와 고용 충격 기준으로는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경기침체에 해당
- 국내 전체 경기는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거친 후 회복 중이나, 고용과 일부 부문은 아직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등 부문별로 큰 차이
  -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이미 위기 이전 추세를 회복한 반면, 고용과 민간소비, 서비스생산은 2021년 1분기에도 위기 전 수준에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
- 가격 추이나 성장기여도를 통해 볼 때 공급 측면이나 해외 수요보다 국내 수요 부진, 특히 소비 부진이 침체의 주된 원인
  - 위기 초기에는 일부 업종에서 공급애로가 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소비 부진의 기여가 지배적
- 산업별로는 양극화라 할 만큼 영향의 편차가 큰 점이 특징적: 산업별 성장률의 분산이 과거 대형 경기침체 중 가장 큰 수준
  - 예술스포츠, 음식숙박 등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반면, 바이오, 반도체 등 일부 IT, 온라인 유통 등은 호황
- 방역과 경제를 서로 상반관계(trade-off relationship)로 인식하기보다,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되, 경제적 피해는 정책을 통해 일정 수준 보상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민간의 협조를 확보하고 경제적 충격도 완화하는 접근이 바람직

- 코로나19 발발 이후 1년 이상의 시계열 자료가 축적되었다는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의 크기, 기간별 추이, 영향의 경로, 부문별 영향의 분포, 정책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함.

1. 충격의 크기

▣ 연간 실질GDP 성장률 3.7%포인트 하락, 고용 약 46만 명 감소

- 감염병 발발이 2020년 초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의 크기를 이전 추세 대비 2020년의 변화를 통해 추정할 때[1], 코로나 위기는 국내 연간 실질GDP 성장률을 3%포인트 이상 낮추고, 연간 고용을 약 46만 명 감소시키는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

〈표 1〉 코로나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추세(A)	2020(B)	하락폭(=B-A)
실질GDP 성장률(%, %포인트)	2.8	-1.0	-3.7
고용(천 명)	238	-219	-457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주: GDP 추세는 이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고용 추세는 이전 3년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 수.

▣ 민간소비와 서비스산업에 특히 큰 충격

-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7%포인트 이상 낮추면서 가장 큰 충격을 미침.
  - 민간소비는 2020년에 5% 가까이 감소하였고, 과거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 위기가 민간소비를 약 7.4%포인트 감소시키는 큰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
  - 민간소비에 이어 수입, 수출, 건설투자의 순으로 큰 충격을 미쳤고, 반면에 설비투자는 오히려 호조
  - 설비투자 호조는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단기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민간소비의 심각한 부진을 반영하여 서비스업도 증가율이 4%포인트 이상 하락

1) 이러한 방식은 코로나 감염병 이외의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하지만 사용 자료의 제약이 덜하고 비교적 손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영향의 크기를 추정함.

〈표 2〉 국내총생산 주요 부문별 충격의 크기

		추세(%)	2020(%)	하락폭(%포인트)
지출항목별	민간소비	2.5	-4.9	-7.4
	설비투자	2.6	6.8	4.2
	건설투자	3.2	-0.1	-3.4
	수출	2.1	-2.5	-4.6
	수입	3.4	-3.8	-7.2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2.4	-1.0	-3.4
	서비스	3.1	-1.2	-4.3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GDP 추세는 이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고용 추세는 이전 3년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 수.

- 수출보다 민간소비의 부진이 더 두드러졌기 때문에 대분류 산업별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에 더 큰 충격

▣ 소비와 고용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다음으로 큰 대형 침체

- 과거의 주요 위기와 비교할 때, 민간소비와 고용 충격 기준으로는 이번 위기가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경기침체에 해당
  - 실질GDP 성장률 하락폭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
-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폭에 비해 소비와 고용 충격이 큰 것은 이번 위기의 특성에 기인
  - 감염병 위협의 특성상 대면 서비스 소비에 가장 큰 충격을 미쳤고, 이들 업종이 고용유발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고용에도 큰 충격

〈표 3〉 주요 위기별 경제적 충격의 규모 비교

	1차 석유위기 (1975)	2차 석유위기 (1980)	외환위기 (1998)	세계금융위기 (2009)	코로나 위기 (2020)
실질GDP 성장률 하락폭 (%포인트)	-2.6	-12.3	-13.1	-3.9	-3.7
민간소비 성장률 하락폭 (%포인트)	-2.7	-7.39	-19.7	-3.2	-7.41
고용 감소폭 (천 명)	-222	-316	-1,512	-311	-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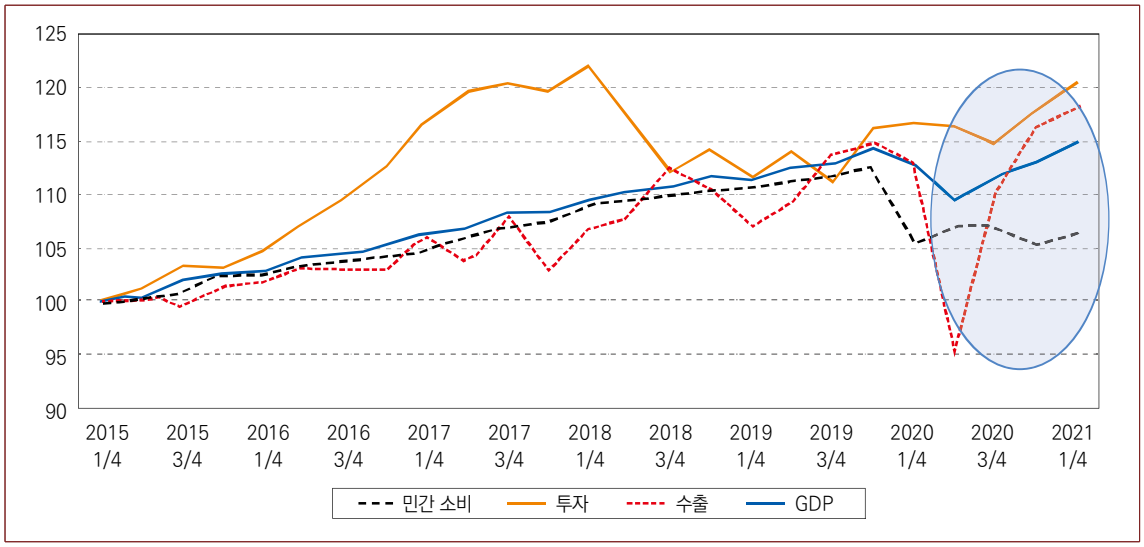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주: 충격의 크기는 이전 5년(고용은 3년) 추세 대비 저점이 속한 해(표시된 연도)의 변화폭.

2. 충격의 기간별 추이

▣ 전체 경기는 2020년 2분기 저점 이후 완만한 회복 추세

- 실질GDP 성장률은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보인 후 회복되는 추세이나, 감염병 위협의 지속으로 아직 회복 속도는 완만한 편
  - 동절기 진입과 더불어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2020년 4분기 성장률이 3분기보다 약간 더 부진
  - [전년동기비 GDP 성장률, %] 2020. 1분기 1.4 → 2분기 -2.7 → 3분기 -1.1 → 4분기 -1.2
- 향후의 회복 속도 역시 감염병 위협의 통제 및 해소 속도에 의해 좌우될 전망

〈그림 1〉 국내 실질GDP 주요 지출항목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주: 2015년 1분기 = 100(계절조정 자료), 2021년 1분기는 속보치.

▣ 부문별 경기에 큰 차이: 제조업·수출은 위기 이전 추세 회복 vs. 고용·소비·서비스 부진 지속

-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경우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보인 이후 비교적 빠르게 반등하여 위기 이전 성장 추세를 회복
  -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2분기 저점에서의 침체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나(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각각 -6.6%, -13.0%),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2021년 1분기에는 위기 이전 추세를 회복

- 통관 수출은 2020년 11월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래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2021년 1분기에는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는 등 부진에서 벗어난 모습

● 반면, 민간소비와 서비스생산, 고용은 2020년 4분기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서 아직도 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

- [전년동기비 증가율(%) 2020년 2분기 → 4분기] 민간소비 -4.0 → -6.5, 서비스 생산 -1.5 → -1.8, 고용 -1.49 → -1.61
- 이들 부문은 2021년 1분기에도 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그림 2〉 산업생산과 고용의 기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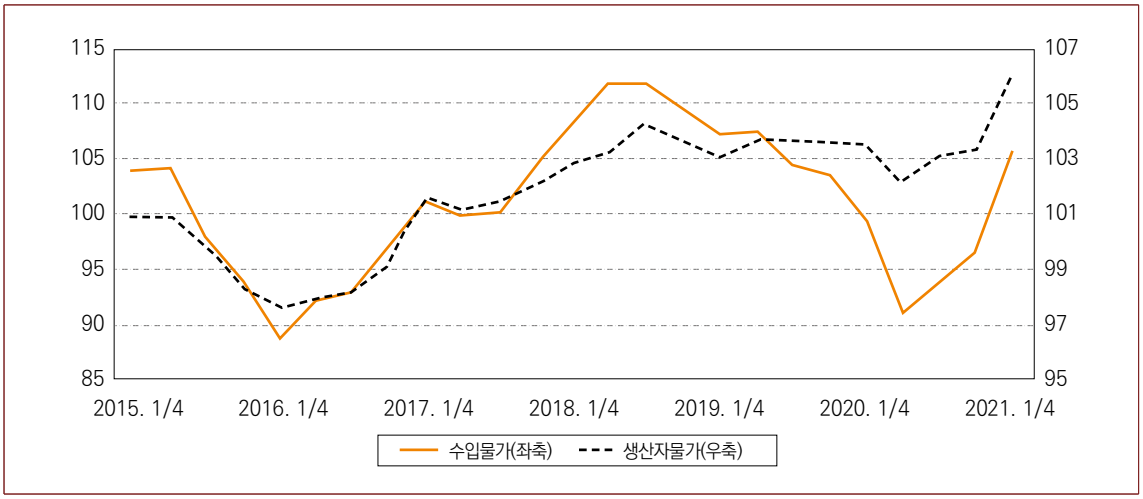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 산업생산은 2015년 1월 = 100(계절조정 자료), 고용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3. 영향의 경로

▣ 충격의 경로는 주로 수요 측면, 특히 소비 부진을 통해 발현

-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은 공급 측면(공급 애로)보다는 수요 측면(수요 부진)을 통해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 국내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 모두 위기 발발과 더불어 큰 폭의 하락 추이를 보여 충격이 공급 차질보다 수요 부진을 통해 나타났음을 시사(〈그림 3〉 참조)
  - 공급 애로는 감염병 발발 초기에 일부 업종에서 나타난 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추정
  - 최근 반도체 수급 애로로 자동차 등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그림 3〉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지수 추이(2015=100)



자료: 한국은행 ECOS.

- 수요항목별로 본 경제성장률 충격은 민간소비 부진의 기여가 지배적
  - 민간소비 부진이 실질GDP 성장률 하락에 90% 이상 기여하였고, 투자의 영향은 미미
  - 수출도 성장률 하락에 약 50%를 기여하였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하여 대외부문 전체로는 GDP 성장률 하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

〈표 4〉 실질GDP 성장률 하락에 대한 지출항목별 기여도

지출항목		성장기여도(%포인트)	성장기여율(%)
내수	민간소비	-3.6	95.7
	정부소비	0.0	-1.1
	건설투자	-0.5	12.8
	설비투자	0.4	-10.1
대외부문	수출	-1.9	50.0
	수입	2.6	-69.1
	소계	0.8	-21.3
GDP		-3.7	100.0

자료: 한국은행 ECOS로부터 필자 계산.
주: 성장률 하락폭 및 기여도는 과거 5년 대비 2020년 하락폭으로부터 계산.

4. 충격의 산업별 분포

▣ 충격의 산업 간 편차, 역대 위기 중 최대 수준

- 이번 위기는 산업별 경기의 양극화라 할 만큼 충격의 산업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 이는 감염병 위협에서 비롯된 위기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과거 사스(SARS) 당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홍콩, 대만 등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 과거의 주요 대형 경기침체와 비교할 때 이번 위기하에서 산업 성장률의 분산이 가장 크며, 동 분산은 과거 대형 경기침체 평균의 약 2.1배

〈표 5〉 한국경제의 주요 위기별 산업 성장률의 분산 비교

	과거 대형 경기침체						코로나 팬데믹
	부실기업위기	1차 석유위기	2차 석유위기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평균	
기간	1971.4분기~ 1972.2분기	1974.4분기~ 1975.2분기	1979.4분기~ 1980.4분기	1998.1분기~ 4분기	2008.4분기~ 2009.2분기		2020.2분기~ 4분기
분산	37.1	10.1	48.8	31.2	14.6	28.4	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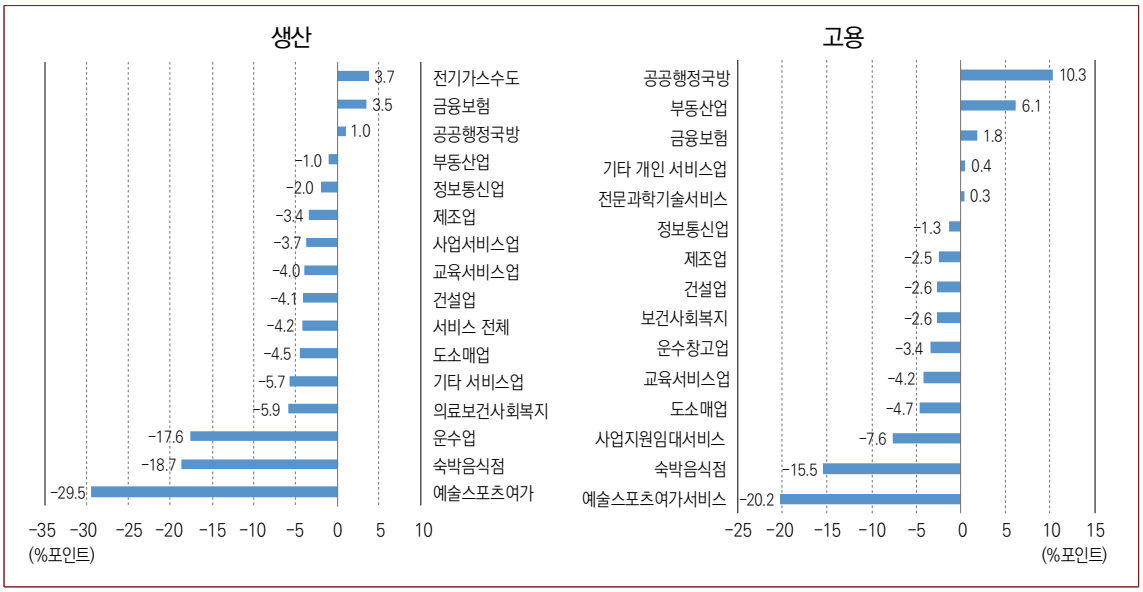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로부터 필자 계산.
주: 1) 대형 경기침체의 정의는 본문 참조.
2) 산업은 '경제활동별 GDP'에 제시된 비농림어업 기준.

- 대형 경기침체를 실질GDP 성장률이 추세에서 표준편차 이상으로 미달하는 상황이 2분기 이상 연속된 경우로 정의할 때, 한국경제는 경제개발 이후 이번 위기를 포함하여 여섯 차례의 대형 경기침체를 경험[2](〈표 5〉 참조)

▣ 산업 간 경기 양극화: 대면형 서비스 침체 vs. 바이오 및 일부 IT 호황

- 예술스포츠, 숙박음식점, 운수 등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전례 없는 수준의 매우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일부 코로나 특수 업종은 오히려 호황을 구가하면서 양극화 양상
- 가장 피해가 큰 예술스포츠업은 성장률 하락폭이 30%포인트에 달하고,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도 성장률 하락폭이 각각 19%포인트, 18%포인트로 매우 큰 타격

〈그림 4〉 주요 산업별 생산과 고용에 미친 영향



자료: 한국은행 ECOS,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표 6〉 주요 피해업종의 성장률 변화

	2015~19 연평균 성장률(A)	2020 성장률(B)	B-A(%포인트)
운수업	1.9	-15.7	-17.6
숙박음식점	2.1	-16.6	-18.7
예술스포츠	1.8	-27.7	-29.5

자료: 한국은행 ECOS.

2) 상세한 내용은 강두용(2020), "이번 위기는 다르다", i-KIET 산업경제이슈 제90호, 산업연구원 참조.

〈표 7〉 주요 피해업종의 고용 변화

	2017~19 연평균 고용 증가율(A)	2020 고용 증가율(B)	B-A(%포인트)
숙박음식점	4.7	-10.8	-15.5
예술스포츠	8.0	-12.2	-20.2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표 8〉 주요 호황업종의 성장률 변화

	2015~19 연평균 성장률(A)	2020 성장률(B)	B-A(%포인트)
바이오	6.1	8.5	2.5
반도체	17.7	22.6	4.9
인터넷 쇼핑	19.3	31.0	11.7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주: 인터넷 쇼핑은 불변 판매액 기준.

- 예술스포츠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고용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0년 고용 증가율이 각각 -12.2%와 -10.8%

● 반면 바이오(의약품), 반도체, 온라인 유통업 등은 코로나 특수를 누리면서 성장률이 오히려 상승

- 2020년 성장률이 인터넷 쇼핑은 31%, 반도체는 23%로 과거 추세에 비해서도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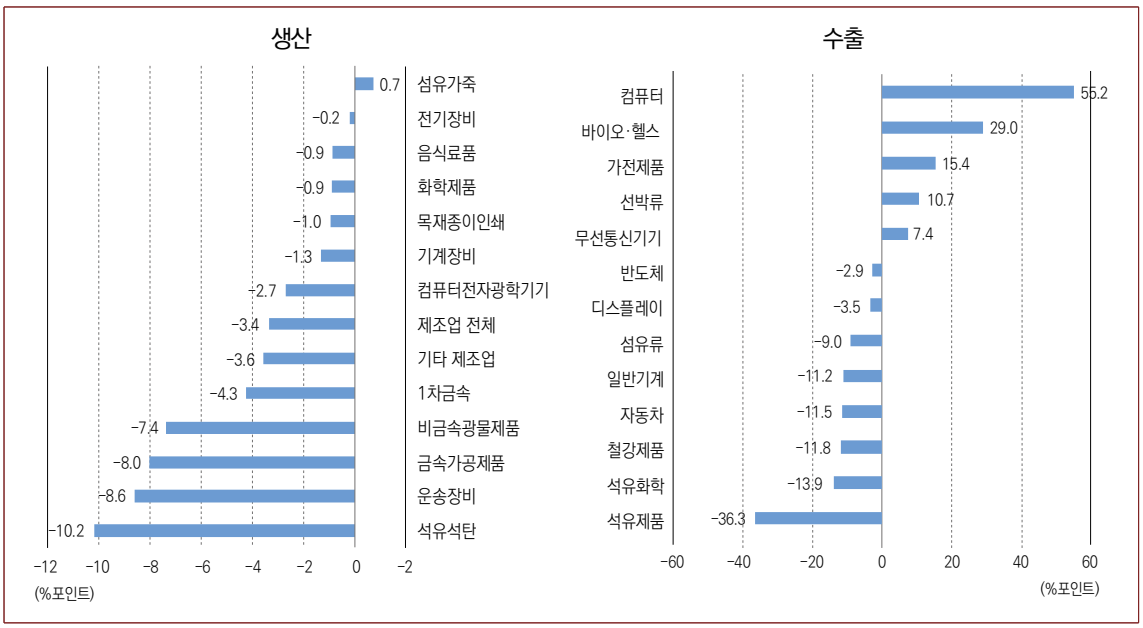
● 제조업 내에서는 석유제품의 생산과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컴퓨터, 의약품, 가전의 수출은 호조

- 생산은 석유정제(-10.2%포인트), 운송장비(-8.6%포인트)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제조업 전체로는 성장률 3.4%포인트 하락 효과

- 수출은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 크게 감소한 반면, 컴퓨터, 의약품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

• 컴퓨터와 의약품 수출은 2020년에 각각 57%, 42%의 기록적 증가세 시현

〈그림 5〉 제조업 세부 업종별 생산과 수출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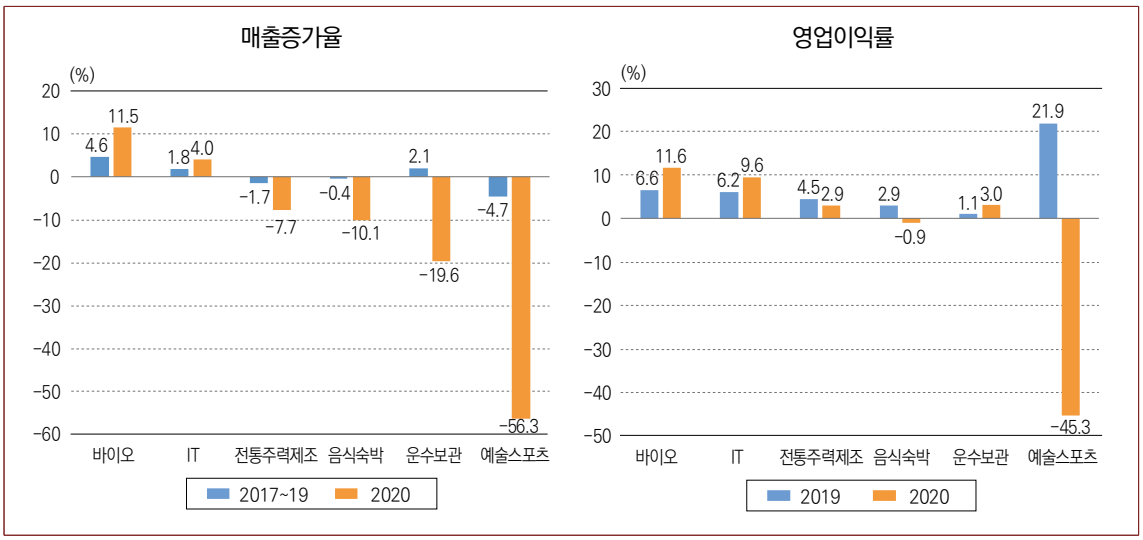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무역협회 무역통계.
주: 1) 최근 5년간 증가율 대비 2020년 증가율 하락폭(%포인트).
2) 수출은 경상달러 기준.

▣ 기업 실적도 업종 간 양극화

- 기업 실적도 주요 피해업종에서 실적 악화가 두드러져, 예술스포츠, 운수보관업, 음식숙박업은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특히 예술스포츠와 음식숙박업의 경우 영업손실을 기록

〈그림 6〉 주요 업종별 기업 실적



자료: NICE 신용평가, KISVALUE.

- 2020년 예술스포츠업 매출은 전년 대비 56% 감소하였고, 운수업과 음식숙박 매출도 각각 약 20%, 10% 감소
- 영업이익률은 예술스포츠업이 -45%, 음식숙박업이 -0.9%

● 반면 바이오와 IT 기업은 매출 증가와 더불어 영업이익률도 호조

- 2020년 매출 증가율이 바이오는 12%, IT는 약 4%였고, 영업이익률도 바이오 11.6%, IT 9.6%로 전년에 비해서도 상승

5. 경제적 충격의 결정요인

▣ 사망률, 대면 서비스 비중, IT산업 비중이 충격의 크기에 영향

● 주요국 자료를 토대로 이번 위기하에서의 실질GDP 성장률 하락폭과 관련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구당 사망률, 대면 서비스 비중, IT산업 비중 등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국(OECD+BRICs)을 대상으로 이전 3년간 평균 성장률 대비 2020년 성장률 하락폭과 인구당 발병률, 인구당 사망률, 경상GDP 중 대면 서비스 비중 및 IT 비중의 관계를 추정

● 추정 결과, 발병률보다는 사망률의 설명력이 높았고, 대면 서비스 비중은 성장률 충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IT산업 비중은 유의성이 낮지만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추정 결과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무엇보다 사망률을 낮추고 감염병을 억제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

● 한편 이번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IT부문, 즉 디지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 디지털화는 실시간 정보 전달을 통해 방역 노력(contact tracing 등)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충격의 완화에도 기여

〈표 9〉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 결정요인 추정 결과

	추정 1				추정 2			
	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상수항	6.19748	1.43074	4.3317	0.000	5.17205	1.35416	3.8194	0.001
발병률	0.00371	0.00246	1.5043	0.143				
사망률					0.28920	0.09399	3.0769	0.004
IT 비중	-0.3225	0.18843	-1.712	0.097	-0.2163	0.17129	-1.263	0.216
대면 서비스 비중	0.44520	0.24312	1.8312	0.077	0.39567	0.21934	1.8039	0.081
R^2	0.235				0.371			
조정 R^2	0.161				0.310			
표준오차	2.54471				2.307097			
관측 수	35				35			

주: 1) 종속변수는 이전 3년간 평균 대비 2020년 실질GDP 성장률 하락폭.
2) 발병률 및 사망률은 2020년 말 기준.
3) IT 비중 및 대면 서비스 비중은 2019년 경상GDP 대비 비중.
4) 대면 서비스는 음식숙박과 문화서비스의 합.

6. 정책적 함의

▣ 충분한 지원과 유연한 대응 필요

- 수출 등 일부 부문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나 서비스, 고용 등은 4분기 들어 부진이 심화되는 등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필요
  - 백신의 보급을 통해 감염병 위협이 충분히 통제되고 경기회복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지속할 필요
  - 민간소비나 고용, 주요 업종의 침체폭은 과거 위기에 비해서도 매우 큰 편이라는 점에서 충격의 규모에 상응한 충분한 지원 노력이 필요
  - 참고로 미국은 이번 위기 들어 금융위기 당시의 세 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을 시행 중
- 한편 이번 위기의 특성상 향후 백신 보급 등으로 감염병 위협이 해소될 경우 이연된 소비가 실현되면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유연한 대응도 중요
  - 과거 사스(SARS) 주요국 사례에서도 감염병 해소 시 경제는 빠르게 회복

-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회복세가 본격화될 경우, 그에 맞추어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

▣ 부문 간 양극화를 고려한 대응 필요

- 이번 위기의 특징인, 양극화라 부를 정도로 부문 간 충격의 편차가 크다는 점은 지원정책 실행 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측면
- 충격의 부문 간 편차가 크고 특히 주요 피해업종은 전례 없는 수준의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요 피해업종 및 계층에 타기팅하는 방식의 지원정책이 바람직
  - 주요 피해업종의 침체 수준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도 선별적 타기팅 방식의 지원이 필요
- 주요 피해부문에 대한 지원의 경우 손실보상 방식의 지원이 이론적으로 적절
  - 이들 부문의 충격은 감염병 억제를 위한 행정조치에 일정 부분 기인하는 바가 크고, 방역 시행을 위해서도 이들 부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염병 억제 조치에 따른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방식이 적절
- 한편 양극화를 고려할 때, 고통의 분담 내지 사회적 연대 도모의 차원에서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부문에 대한 한시적 '초과이익세'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 초과이익세(excess profit tax or windfall profit tax)는 과거 미국에서 한국전쟁 당시나 석유위기 시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음.
  - 다만 정책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는 점에서 초과이익의 기준 설정이나 세수 확보 규모 등의 측면에서 시행상의 어려움이나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
- 일자리 정책에서도 경기 양극화를 활용하여 고용유지 지원금과 같은 해고억제 정책과 더불어 호황업종의 고용 확대를 유인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
- 업종 간 양극화나 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
  - 이번 위기의 주요 피해업종에서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자산가격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어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계층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

- 주요 피해업종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도 필요

▣ 방역과 경제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 중요

-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역과 경제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의 설정
- 방역과 경제를 서로 상반관계(trade off relationship)로 인식하기보다,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되 방역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정책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충격도 완화하는 접근이 바람직
  - 방역과 경제적 피해 억제를 서로 상반관계로 인식하여 양자 간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접근법(경제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방역의 수위를 조정하는 접근)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함.
  - 경제적 충격의 궁극적 결정요인은 감염병 확산 정도라는 점에서 질병 억제에 최우선을 두는 자세가 긴요
  - 다만 이 경우 방역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정책을 통해 적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보상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민간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경제적 충격도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

▣ 중장기 대응: 디지털화, 생태적 인식, 적응 유연성(resilience) 강화

- 이번 위기에서 나타난 디지털화의 효능과 그 가속화 추세를 고려할 때, 디지털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노력과 더불어 경제의 디지털화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
  - 디지털 경제에서 이번 팬데믹과 유사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사이버 보안 관련 대응의 강화 노력이 필요
- 이번 위기를 계기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감염병의 빈발이나 기후변화 문제, 생물 다양성 위협 등 경제활동의 생태학적 비용 내지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강화도 필요
  -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기업 활동, 개인의 소비 등 경제활동의 전 영역에서 생태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높여나갈 필요

- 위기 대응과 관련된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적응 유연성(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도 중요
  - 공급망(supply chain)의 적응 유연성, 필수 생산물 및 필수 노동력의 생산 혹은 공급능력 확보와 이를 위한 보상체계 구축 노력 필요

강두용 동향분석실 | 선임연구위원 | dykang@kiet.re.kr | 044-287-3205
민성환 동향분석실 | 선임연구위원 | shmin@kiet.re.kr | 044-287-3127
박성근 동향 · 통계분석본부 | 연구위원 | sungpark@kiet.re.kr | 044-287-3172

KIET 산업연구원
발행처 산업연구원 | 발행인 장지상 | 편집인 김영수 | 편집 · 교정 정경희 · 조계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287-3114 Fax. 044-287-3333 www.kiet.re.kr

이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